

態度, 態度內變散 및 行動^{*}

李 秀 遠

漢陽大學校 教育學科

態도와 行動사이의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態度構造에서의 信念들의 同質性的 크기를 나타내는 個人內 變散指標로서 態度內變散을 조작하여 態度대상에 대한 信念들이 異質的이어서 態度內變散이 증가할 때는 이 信念들이 同質的이어서 態度內變散이 감소할 때보다 態도와 行動의 不一致도 증가할 것을 예언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130 명의 大學生에게 TV에 對한 態도와 態度內變散을 Fishbein이 제안한 繼續的 統制聯想方法을 利用하여 測定한 後 2주 후에 그들에게 TV시청에 對한 行動을 重多行動準據를 使用하여 30가지 行動장면에서 알아보았다. 이 結果는 예언대로 態度內變散이 낮은 집단에서 態도와 行動의 相關이 유의미하였으나 態度內變散이 높은 집단에서 이 關係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원인에 對한 분석에서 態度內變散의 크기가 각각의 행동장면에서 보여주는 행동들의 變散의 크기와 密接한 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態度가 행동장면이 바뀔에 따라 分殊化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態度는 사회심리학의 중심개념의 하나로 일찌기 Gordon Allport (1954)는 이를 "사회심리학이라는 건축물의 주춧돌"로 비유한 적이 있다. 태도개념에 대한 사회심리학자들의 전통적인 관심은 개인의 사회행동이 그의 태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직관적 추측에서 비롯되었다.

態度는 심리적 대상에 대한 快-不快次元에서의 感情的 反應을 유발하는 個人內的 性向 (predisposition)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어 왔다. (Smith, Bruner 및 White, 1956). 이 정의에 따르면 態度는 개인의 사회활동의 선행 決定要因으로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개인의 행동에

* 이 연구의 着想過程에서 여러가지 助言을 아끼지 않은 張聖洙 教授와 資料蒐集과 處理에서 헌신적으로 助力해 준 尹吉根 君에게 감사드린다.

일관성과 지속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상황에 따른 행동의 一貫性은 태도의 정의 자체와 부합하는 것으로 만일 행동이 상황에 따라 일관성이 없다면 태도개념은 그 성립이유를 잃게 된다. 따라서 태도를 개인내적 성향으로 설정할 때 태도와 행동사이의 예시적이며 因果的인 紐帶는 하나의 자명한 사실로서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태도와 행동사이에 이 자명한 관계를 의문시하지 않을 수 없는 연구가 관련문헌을 통하여 일찍부터 나타났다. 1930년대의 中國人에 대한 미국인의 偏見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Lapiere (1934)는 중국인 부부와 함께 여행도중 호텔 지배인이 취한 행동(단 한곳에서 투숙을 거절)과 후에 중국인에 대한 態度조사에서 나타난 그들의 態度(응답자의 90% 이상이 투숙을 거절) 사이에 극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태도와 행동사이에 의문을 제기, 이 후 2차대전 직전까지 약 10년동안 활발하게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논쟁의 결과로서 개인내면에 자리잡은 가설적인 潛在變因으로서의 태도개념에 대한 회의가 刺戟一反應의 行動主義를 표방하는 학자들 사이에 나타났다. 이들은 태도를 심리적 대상에 대하여 주어진 방향(好意 또는 非好意)으로 행동을 유발하는 蓄然性(likelihood)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했다. 즉 態度는 행동으로부터 추론되는 屬性이지 개인내면에 위치한 잠재변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태도와 행동의 不一致도 이 양자사이의 반응의 종류 즉 태도를 표현하는 言語的反應과 실제장면에서 보이는 行動的反應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내면에 있는 태도와 밖으로 드러난 행동사이의 차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Kendler 와 Kendler, 1949). 그러나 이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 外顯的 행동반응과 言語的 태도반응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더 이상의 판단의 準據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태도와 행동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Lapiere의 논쟁이 있은 후 근 30년동안 이 문제가 자취를 감추었다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활발히 재연되기 시작했다. Wicker (1969)는 이 문제를 다룬 30여 편의 연구들을 종합하고 나서 "태도는 외현적 행동과 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미하다. 이 양자사이의 相關은 $r = .30$ 이상을 넘지 않으며 대부분 상관이 아주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65)

고 결론 내렸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이결론에 동조하는 연구들이 계속하여 나타났다 (Deutscher, 1969 ; Ehrlich, 1969 ; McGuire, 1969) 그리하여 1970년도 초반기에 Abelson(1972) 과 같은 사람은 태도 개념을 거의 무용한 것으로 까지 몰고 갔다.

한편 종래의 태도개념에서 야기되는 이론적 혹은 방법론적 문제를 극복하므로서 태도와 행동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Fishbein 과 Ajzen (1974)은 태도가 행동을 예언하지 못하는 원인을 태도와 행동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대한 분수화 (specificity) 가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즉 태도는 주어진 대상의 전반적인 면이 고려되어 측정된 반면에 행동은 부분적인 면에서만 측정되므로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 생각은 그동안 다각적으로 검토받았다 (Weigel과 Newman, 1976 ; Heberlein과 Blach, 1976 ; Ajzen 과 Fishbein, 1977). 또한 이와함께 태도 이외에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내지는 개인적 변인에 대한 탐색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개인적 변인으로는 태도구조에서의 감정 - 인지 일관성 (Norman, 1975) 행동의 책임에 대한 自己轉嫁 (Schwartz, 1973) 상황 또는 개인단서에 대한 自己調整 (Snyder와 Tank, 1976) 등에 대하여 연구가 되었으며 상황적 변인으로는 주어진 행동의 공적 내지는 사적인 특성 (Warner 와 DeFleur, 1969) , 태도를 현저하게 만드는 상황 (Snyder 와 Swann, 1976)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경험하는 사건의 계열 (Davidson 과 Jaccard, 1979) 등이 탐색되었다.

최근에 Fazio 와 Zanna (1978)은 직접적인 행동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태도는 그렇지 못한 간접적인 비행동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태도에 비하여 거의 완벽하게 행동을 예언하여 준다고 보고 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태도의 측정과 행동의 측정사이에 개재하는 사건의 계열이나 시간간격과 같은 것이 이 양자사이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 사실이나 본질적으로 태도가 행동의 決定者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들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Kahle 과 Berman, 1979 ; Bentler 와 Speckart, 1979 ; Bagozzi 와 Burnkrant, 1979). 그리하여 현재 이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Regan 과 Fazio(1977)가 적절하게 표현한 것처럼 태도가 행동을 예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와 같은 물음이 아니고 언제 태도가 행동을 예언해 주는 가라는 물음으로 심약되고 있다.

態度에 대한 規範的 接近의 問題

일찌기 Allport(1937)는 인간의 성향에 관한 전통적인 연구들이 개인차의 본질에 대하여 개별적 접근보다 규범적 접근에 기초하여 전개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규범적 접근(nomothetic approach)은 인간의 성향을 기술하기 위하여 보편적인 성향차원을 추구한다. 태도의 호오차원(favorableness dimension)은 이러한 예증의 하나로써 모든 사람의 태도가 이 차원 위에서 나열된다. 따라서 이 차원 위에서 개인간의 위치의 차이는 태도에서의 개인차로 환원되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주어진 性向次元을 모든 사람이 같은 입장에서 대할 수 있으며 이 차원을 설정한 연구자의 의도에도 같이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때 호오 차원에서의 위치의 차이를 태도에서의 차이로 환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별적 접근(idiographic approach)은 바로 이 점을 문제시 하였다. 이 접근은 주어진 차원이 얼마나 적절하고 적합한가에 있어서 개인마다 서로 차이가 나며 또한 주어진 차원과 관계를 갖는 양식에서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본다. 앞의 Lapierre의 연구에서 중국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상류사회의 백인신사와 함께 동행하는 중국인 부부에게 대하는 행동과 그렇지 않고 전혀 미지수인 중국인에게 취하는 태도를 같은 차원에다 놓고 볼 수 있겠는가? 연구자는 이 두가지 장면에서 유발된 반응을 중국인에 대한 好惡感이라는 하나의 차원에다 놓고 비교하였다. 그러나 만일 이 두가지 반응이 서로 다른 차원, 예컨대 전자는 백인신사에 대한 信賴感에서 그리고 후자는 중국인에 대한 호오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들 사이에 직접적인 비교는 이미 그 의미를 잃게된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것은 사람에 따라 어떤 반응자는 이 두가지 장면에서 같은 차원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에 다른 반응자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반응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뜻대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머리속에만 있고 실제 반응자의 행동속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반응을 얻게 된다. 표집대상중에 후자와 같은 피험자가 많을 수록 태도와 행동사이의 일치율 기대하기 어렵다는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볼때 태도와 행동사이의 불일치의 원인은 피험자 자신에게서 오는 문제라기 보다는 주어진 차원과 관계를 갖는 양식에서 연구자와 피험자 사이에 혹은 피험자 개개인 사이에서 빚어지는 불일치에 기인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태도와 행동사이의 불일치는 연구자가 미리 선정해 놓은 상황과 행동의 標集範圍안에 얼마나 많은 피험자가 포괄될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 오류는 규범적 접근이 보편적인 인간의 性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성향을 지나치게 획일화된 틀속에 규범화 시킴으로써 필연적으로 빚어지게 된것이다.

일반적으로 태도의 주제가 되는 심리적 대상은 그것과 결부되어 있는 다수의 신념들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은 이들 신념중의 일부 혹은 전부와 동참하고 있다. 여기서 개인의 態度는 그가 갖고 있는 이들 신념을 하나로 통합하여 태도의 好惡次元위의 한 점에 위치시킴으로써 얻어졌다. Fishbein (1963) 의 태도모형은 이 과정을 매우 잘 드러낸다. 그에 따르면 “(1)개인은 일정한 대상에서 다수의 신념을 갖고 있으며 즉 주어진 대상은 다른 여타의 대상, 개념, 특성, 가치와 같은 여러가지 屬性과 관련되어 있다. (2)개인의 속성은 內顯的 評價反應 (implicit evaluative response) 즉, 태도와 결합되어 있다. (3)條件反射를 거쳐 이 내현적 평가반응이 태도대상과 결합된다. (4)이렇게 결합된 내현적 평가반응들이 하나로 통합된다. (5)그리하여 태도대상은 이 하나로 통합된 내현적 평가반응 즉,태도를 유발하게 된다 ” (p.233) 는 것이다. 결국 그의 모형은 다른 態度測定技法 (Edwards, 1957) 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태도를 그가 갖고있는 신념들의 내현적 평가반응의 총화로서 표시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이 태도를 호오차원위의 하나의 점으로 위치시키는 조작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신념을 이 차원에서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냈다. 개인에 따라 주어진 대상에 대하여 방출하는 신념의 가지수나 내용이 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기존의 태도 개념에서는 신념수준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태도 차원에서 같은 점에 위치한 사람들은 그들의 신념도

사실상 같은 것으로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태도차원에 대한 규범적 가정으로 말미암아 신념수준에서 빛어지는 개인차를 획일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앞에서 본 것처럼 개인이 지닌 신념의 전체적 방향은 태도 차원 위의 하나의 위치로서 반영되었다. 그러나 신념은 태도로 통합되기 이전에 그 자체의 內顯的 評價反應, 즉 태도와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개개의 신념이 그 자체가 또한 태도차원위에 위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신념들을 태도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묶음의 誤差가 필연적으로 나타 나게 된다. 이 묶음의 오차는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신념의 가지수가 서로 다른 개인들을 획일화함으로써 야기된다.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한 신념의 가지수나 내용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존의 태도로는 이 신념의 가지수에서의 개인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동안 일부 심리학자들은 주어진 심리적 대상의 속성으로 태도 이외에 신념구조의 分化性(differentiation.)이나 復雜性(complexity)이 있음을 밝혀냈다. Irwin, Tripodi 와 Bieri (1967)은 개인이 지닌 신념의 가지수를 신념의 복잡성으로 다루었으며 Harvey, Reich 와 Wyer (1968)는 이를 신념의 분화성으로 보고 접근하였다. 이들은 신념의 가지수에서의 개인간의 차이는 그의 태도의 강도뿐만 아니라 방향에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념의 가지수는 태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있는 것으로 태도구조의 기술에서 이들은 빼어놓을 수 없는 요소를 이룬다.

다른 하나는 위의 신념의 가지수와 연관되는 것으로 개개의 신념의 내현적 평가반응들이 태도로 통합됨으로써 이들 내현적 평가반응들의 變散度에서의 개인간의 차이를 획일화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어진 점수들의 평균이나 총화를 구할 때는 반드시 개개의 점수와 평균사이의 차이에서 오는 변산이 있게 마련이라는 통계적 논리를 감안할 때 전형적인 묶음의 오차로서 간주될수 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개개의 신념은 그 자체의 내현적 평가반응 즉 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것들도 태도와 마찬가지로 또한 태도차원 위에서 나열될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은 일정한 태도대상에 대하여 다수의 신념을 동시에 갖고 있을수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개인은 이들 내현적 평

가반응들의 총화인 태도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變散度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심리적 대상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서의 이 변산성은 그동안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Tesser (1978)가 사고의 결과로서 개인의 태도가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근거를 되찾게 되었다. 그에 의하면 개인은 모든 심리적 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圖式(schema)을 미리 갖고 있으며 이 도식의 지배 밑에서 사고는 신념에서의 변화를 초래하여 결국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이들 신념으로부터 태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 위의 태도내에서의 변산은 사고의 결과로서 변화하는 태도의 「변화가능범위」로 간주할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태도내에서의 변산이 그가 말하는 대상에 대한 개인의 도식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남는다. 그러나 심리적 대상에 대한 개인의 신념은 그 대상에 대한 그의 인지적 세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이들 신념으로부터 얻어진 태도내에서의 변산은 개인의 인지적 세계를 態度次元으로 다시 환원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태도내변산의 영역 안에 있는 태도들이 사고의 결과로서 그때 그때 밖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태도대상에 대한 개인내변산으로서 態度內變散(intra-attitudinal variability)을 태도로 부터의 뉘음의 오차로서 가볍게 간과해 버릴수 없는 이유는 앞의 서론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기존의 태도개념이 행동예언에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만일 태도가 행동을 예언할 수 없다면 태도개념은 그 성립이유를 잃게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실상 태도와 행동사이의 관계를 의문시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타나 이 양자사이의 관계가 위험한 상태에까지 와있다 (Abelson, 1972). 그러나 한편 기존의 태도개념에서 뉘음의 오차인 태도내변산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생각하면 태도와 행동사이의 불일치는 차라리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볼수도 있다.

왜냐하면 Tesser (1978)의 말대로 사고의 결과에 쫓아 주어진 대상에 대한 현저한 신념들이 그때 그때 변하며 이에따라 그의 태도도 바뀐다면 好惡次元위의 고정된 위치로서 알려진 기존의

태도를 가지고는 이 변화를 취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사고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동에서의 변화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사고의 결과로서 주어진 순간에 태도결정에 참여했던 현저한 신념들이 행동장면에서도 또한 현저하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여기서 왜 앞에 Fishbein 과 Ajzen (1974) 이 태도가 행동을 예언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태도대상에 대한 分殊化를 들고 있는가가 분명해진다. 심리적 대상에 대한 태도는 사고의 결과에 따라 신념이 바뀌면서 이것도 또한 변화하는 태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은 호오차원위에서 확일화된 고정된 태도를 가정함으로써 태도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하는 행동을 예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심리적 대상에 대한 태도를 가능한한 다양하게 분수화함으로써 사고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변화하는 태도에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태도로부터 어떻게 행동을 예언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으로 앞에서 제기한 태도내변산을 도입할 수 있다. 앞에서 態度內變散은 사고의 결과로서 변화하는 태도의 變化範圍를 결정짓는 개인적 圖式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실에서 태도내변산은 개인의 태도가 사고에 의하여 변화 될 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가 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태도변산개념을 이용하여 사고의 변화로 말미암은 행동에서의 변화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 즉 주어진 태도대상에서 개인이 취하는 행동의 범위는 그의 태도내변산의 크기를 알므로서 예언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예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가 갖고있는 태도내변산의 크기를 알므로서 앞으로 그가 취할 행동을 확률적으로 예언할 수는 있는 것이다.

態度內變散을 통한 行動의 確率的 豫言

앞에서 제기한 態度內變散概念의 타당성을 결국 행동 예언에서의 효율성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태도내변산을 적용했을 때 기존의 태도개념에 비하여 행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를 밝혔다. 여기서 태도내변산의 조작은 Fishbein (1967)

의 태도모형에서 제시된 변인을 그대로 이용하였다¹⁾ 그리하여 이들 변인으로부터 통계학의 標準偏差의 공식을 대입하여 태도내변산의 추정공식을 아래와 같이 나타내었다.

$$SA = \frac{1}{N} \sqrt{N \sum_{i=1}^N (B_i a_i)^2 - \left(\sum_{i=1}^N B_i a_i \right)^2}$$

여기서 SA는 대상o에 대한 태도내변산, Bi는 대상o에 대한 신념i의 蓋然度(likelihood) 혹은 연합강도, ai는 신념i에 대한 好惡度(favorableness) 혹은 태도, N는 대상o에 대한 개인의 신념의 가지수를 나타낸다. 이 공식으로 얻어지는 태도내변산은 개인이 방출한 신념들의 호오도사이의 標準偏差로서 여기서 개개의 신념의 호오도는 그 신념의 개연도를 가지고 무게를 준 것이다. 따라서 태도내변산은 특정한 심리적 대상에 대한 태도에서의 개인내변수(intra-individual variability)을 나타낸다.

아래에서는 위와같이 조작된 태도내변산이 행동예언장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은 태도와 행동사이의 불일치가 태도내변산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즉 높은 태도내변산에서는 낮은 태도내변산에서 보다 행동의 변산범위도 증가하기 때문에 태도가 행동을 예언하는 확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가정했다.

方 法

被驗者 : 130명의 피험자가 끝까지 연구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이며 남자 65명, 여자 65명이었다. 처음에 참가한 피험자는 148명이었는데 추후조사에서 결석으로 14명이 탈락되었으며 최후조사에 까지 참가한 피험자 중 4명은 기재누락으로 제외되었다.

道具 및 節次 : 이 연구는 3차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텔레비존에 대한 피험자들의 신념을 알아 보았다. 신념조사방법은 Fishbein(1967)이 제안한 지속적 통제연상기법을 이용하였다. 피험자에게 줄이 그어진 백지를 주고 TV를 비롯한 5가지 태도 대상에 대하여 연상을 받았다. 이때 준 지시는 “이제부터 구두로 태도대상을 하나씩 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대상

註1) Fishbein(1967)의 態度 모형에서 態度推定値는 $A_o = \sum_{i=1}^N B_i a_i$ 로서 測定되는데 여기서 A_o 는 態度推定値, B_i 는 대상o에 대한 信念i의 蓋然度 혹은 信念強度, a_i 는 信念i에 대한 好惡度 혹은 態度, N는 信念의 가지수이다. 그리하여 態度推定値는 각 信念의 호오도에 그 信念의 개연도를 가지고 무게를 주어 이를 모두 합산하여 總和를 구함으로써 얻어졌다.

의 특성, 성질 및 속성중에 좋은 점과 나쁜점을 생각해 보고 떠오르는 순서대로 차례를 매기면서 간략한 문장으로 그것을 기록해 주시오. 이 때 문장은 철자법에 맞지 않아도 되며 가능한한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하시오"였다. 제한시간은 각 대상에 대하여 2분이었다. 한 대상에 대하여 연습시행을 거친후 본 조사로 들어 쓰으며, 조사는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일주일 후에 2차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차조사에서 얻어진 TV에 대한 신념 42가지에 대하여 好惡度(ai)와 蓋然度(Bi)를 같은 피험자들에게 측정하였다. 미리 작성한 평정지를 통하여 好惡度は 각 신념을 "극히 나쁘다" (-3)부터 "극히 좋다" (+3)의 意味徵分法の 7점척도에서 평정시켰으며 蓋然度は 각 신념이 태도대상으로 부터 9인 항목로서 "전혀 기대할 수 없다" (0)부터 "전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6)까지의 7점척도에서 평정시켰다. 이들 조작은 모두 Fishbein (1967)의 제안을 그대로 쫓은 것이다.

3차조사는 2차조사가 끝난 15일후에 실시되었는데 이때 태도 대상에 대한 평소 행동을 질문지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이 질문지는 Ajzen과 Fishbein (1977)이 제안한 重多行動準據(multiple-act criteria)를 참작하여 TV시청에 대한 행동을 30가지 장면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여기서 제시된 장면은 모두 1차조사에서 얻어진 42가지 신념중에서 30가지를 선별하여 행동장면으로 설정한 것인데 이들의 시사에 따라 신념을 대상(예, 교양프로그가 방영될 때), 상황(예, 가족끼리 모였을 때), 및 行動(예, 정세를 알고자 할 때)으로 分殊化할 수 있는 것만을 뽑았다. 또한 신념의 聯想共通量(개별연상방출빈도/전체연상방출빈도)에 따라 높은 공통신념장면(5%이상), 중간 공통신념장면(2-5% 사이), 낮은 공통신념장면(2%이하)의 각 10개씩의 장면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30가지 장면에서의 최근 일개월간의 TV시청에 대한 행동을 "전혀 보지 않았다"(0)부터 "극히 자주 보았다(6)까지의 7점척도에서 평정토록 하였다. 이어서 최근 2주동안의 TV시청에 대한 전반적인 행동을 위와 동일한 척도에서 평정시켰다.

資料處理: 1차조사에서 얻어진 통제 연상자료는 신념별로 내용

분석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Fishbein과 Ajzen (1975)이 제안한 記述的 信念과 推論的 信念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포함시켰다. 방출된 신념중에 주어진 대상에 대한 자신의 태도만을 표현한 것(예, TV를 좋아한다)은 제외시켰으며 어떤 한 개인에게서 같은 신념이 두번이상 나올 때는 하나만 택하였으며 한 문장에 두개 이상의 신념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를 분리하여 처리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전체신념의 가지수는 42가지였으며 개인당 평균 신념 방출빈도는 4.62개였다. 2차조사에서 얻어진 각 신념에 대한 개인별 호오도(a_i)와 개연도(B_i)를 가지고 앞의 개인별 신념 방출목록에서 각 개인의 $a_i B_i$ 를 구하였다. 그리하여 Fishbein의 태도

$$\left(\sum_{i=1}^N B_i a_i \right) \text{와 태도변산} \left(\frac{1}{N} \sqrt{N \sum_{i=1}^N (B_i a_i)^2 - \left(\sum_{i=1}^N B_i a_i \right)^2} \right) \text{을}$$

계산하였다.²⁾ 이때 a_i 나 B_i 는 모두 해당신념에 대한 개인의 평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태도내변산의 信賴度를 알아보기 위하여 2차조사에서 나온 42가지 신념 각각에서의 호오도와 개연도를 이용하여 이들 신념들사이의 변산도를 위의 태도내변산공식($N=42$)에 따라 개인별로 표준편차를 구한 후 앞의 통계연상에서 얻어진 태도내변산과 적률상관을 내어 본 결과 $r = .69$ 가 나와 신뢰로움을 검토받았다. 또한 3차조사에서 행동의 측정도 30가지 행동장면에서의 개인의 행동의 평균과 전체적인 행동평가사이의 상관인 $r = .89$ 로서 신뢰롭게 나왔다.

結 果

분석의 첫 단계에서 130명의 피험자들을 그들의 태도내변산(SA)의 크기에 따라 높은 변산집단(65명)과 낮은 변산집단(65명)으로 나누었다. 그런데 태도(A_0)와 태도내변산사이의 積率相關이 $r = -.29$ ($Z = 3.29$, $P < .01$ 一方檢證)가 나와 태도가 비호의적일수록 태도내변산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태도내변산의 크기에 따른 집단구성에서 태도의 영향을 배제할 필요

註2) 여기서 信念의 호오도(a_i)에다 信念의 蓋然度(B_i)를 무게를 주어 $B_i a_i$ 로서 態度內變散을 구했을 때와 信念의 호오도 a_i 만을 가지고 態度內變散을 구했을 때 이 두 數值間의 積率相關이 $r = .89$ 가 나왔다. 그리하여 이연구에서는 무게를 준 態度內變散을 사용하였다.

가 있었다. 그리하여 태도에 따라 피험자들은 7가지 집단(각 집단의 태도의 평균 8.20, 5.32, 2.93, 0.04, -2.71, -5.26, -7.96)으로 나누고 각 집단내에서 태도내변산의 중앙치를 토대로 높은 변산과 낮은 변산집단을 구분지었다. 따라서 태도내변산의 크기에 따른 집단구분은 7가지 태도집단에서 그 기준이 서로 달랐다. 이렇게 하여 나온 높은 변산집단의 태도내변산의 평균은 3.85이며 낮은 변산집단은 2.87이었다.

이 연구의 중심과제인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태도 (A_0)와 30가지 重多行動準據장면에서 보인 행동의 平均사이의 적률상관을 낸 결과 $r = .41$ ($z = 4.66, p < .001$, 一方檢證)로서 태도로서 행동이 예언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태도내변산의 크기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즉 낮은 변산집단에서 태도와 행동의 상관인 $r = .56$ ($z = 4.48, p < .001$, 일방검증)이 나와 전체 피험자를 상대로한 결과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반면에 높은 변산집단에서는 $r = .20$ ($z = 1.60, p > .05$, 일방검증)이 나와 태도와 행동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의 상관계수사이의 차에 대한 檢證을 Fisher의 z 換尺으로 해 본 결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56$ 對 $.20$, $z_D = 2.39, p < .02$, 양방검증). 따라서 앞에서 설정한 가정 즉 태도내변산의 크기는 개인이 얼마나 그의 태도로서 행동을 결정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개인의 태도내변산의 크기와 그의 행동변산의 크기(30가지 장면에서의 행동간의 표준편차)사이의 상관관계가 $r = .59$ ($z = 6.70, p < .001$, 일방검증)이 나와 태도내변산이 높을수록 장면에서의 행동간의 변산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상관계수는 앞의 태도와 행동사이의 상관($r = .41$)보다 더 높은것으로 태도로부터 행동을, 즉 態度次元위의 한 위치로부터 行動次元위의 한 위치를 예언하는 것이 태도내변산으로부터 행동변산을, 즉 태도차원위의 일정한 범위로 부터 행동차원위의 일정한 범위를 예언하는 것보다 더 예언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집단별로 보아도 높은 변산집단에서는 장면에서의 행동변산의 평균이 2.08인데 비하여 낮은 변산집단은 1.86이 나와 두 평균사이의 차의 의의도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2.06, p < .05$, 양

방검증). 이렇게 볼 때 태도내변산의 크기가 높은 개인은 그렇지 못한 개인보다 그의 행동이 주어진 장면의 특성에 쫓아 결정 되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좀 더 깊이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표1에서 제시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표는 각 행동장면에서 보이는 개인의 행동에 대하여 태도의 영향과 신념의 영향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여기서 설정한 행동장면은 모두 피험자들이 방출한 신념을 가지고 제작되었다 따라서 각 행동장면에서 보인 개인의 행동과 그 장면으로 설정된 신념에 대한 그의 호오도(a_i)사이의 차이를 환산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태도(A_0)와 각 장면에서의 그의 행동사이의 차이도 구할 수 있으나 표1의 信念差는 주어진 신념의 호오도와 그 신념으로 설정된 장면에서의 행동간의 絶對差(|信念 好惡度 - 場面行動點表 |)이며, 態度差는 태도와 각 장면에서의 행동간의 絶對差(|態度 - 場面行動點表 |)를 구한 것이다. 그런데 이 때 태도는 신념차와 동일한 척도에서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원래의 점수 ($\sum_{i=1}^N a_i B_i$)를 이용하지 않고 앞에서 나눈 태도의 7 등급을 이용하여 가장 비호의적 태도를 -3으로, 가장 호의적 태도를 +3으로 환적하였다.

< 表1 > 態度內變散集團에서 態度 - 行動差와 信念 - 行動差의 比較

場面の 信念共通度	낮은 態度內變散 (N = 65)		높은 態度內變散 (N = 65)	
	態度差 *	信念差 **	態度差	信念差
낮은 共通度	1.76	1.72	1.92	1.70
중간 共通度	1.88	1.76	2.20	1.70
높은 共通度	1.88	1.44	2.04	1.34
平 均	1.84	1.64	2.05	1.58

* 한 피험자가 각 행동장면에서 얻은 점수와 그의 태도사이의 절대차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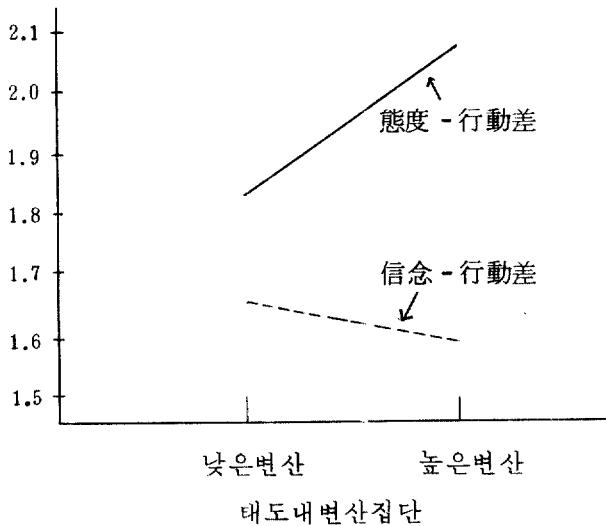
** 한 피험자가 각 행동장면에서 얻은 점수와 해당장면에 대한 그의 신념의 호오도사이의 절대차의 평균

<表 2> 態度內 變散集團에서 態度差와 信念差에 대한 變量分析結果

變 散 源	自由度	平均自乘	F
被驗者間	129		
態度內變散(A)	1	93.46	
集團內被驗者(誤差A)	128	121.41	
被驗者內	650		*
差의源泉(B)	1	2174.34	72.59***
A × B	1	370.89	12.39***
B × 集團內被驗者(誤差b)	128	29.94	
場面共通度(c)	2	279.46	22.13***
A × C	2	27.00	2.14
C × 集團內被驗者(誤差C)	256	12.63	
B × C	2	319.76	13.39***
A × B × C	2	5.86	
BC × 集團內被驗者(誤差bc)	256	23.88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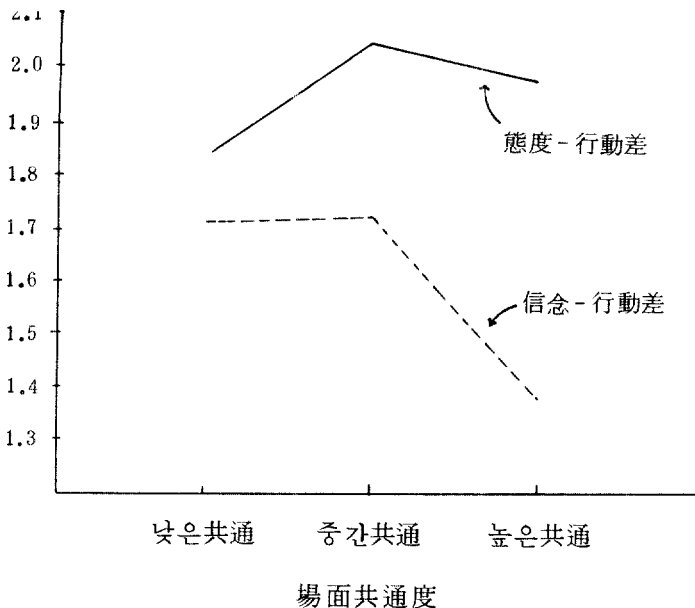
표 1에 대한 변량분석결과는 표 2에서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면 차의 원천(태도-행동차와 신념-행동차)이 매우 유의미하게 나왔다($F = 72.59, df = 1/128, p < .001$). 이것은 태도-행동차(態度差)가 신념-행동차(信念差)보다 더 크게 나온다는 것으로 태도와 행동의 차이의 평균이 1.95인데 반하여 신념과 행동의 차이는 1.61이었다. 따라서 이 결과에서 특정한 행동장면에서 야기되는 분수화된 행동에 대한 예언은 그에 상응하는 신념의 호오도로 부터 예언하는 것이 전반적인 태도로부터 예언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가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며 피험자의 태도내변산의 크기에 비례하고 있음이 태도내변산×차의 원천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F = 12.39, df = 1/128, p < .001$). 그림 1에서 태도내변산이 높은 집단에서는 낮은 집단에 비하여 태도-행동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신념-행동차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태도내변산이 높을수록 신념에 따라행동이 결정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었다.



〈그림 1〉 態度內變散集團에서 態度 - 行動差와 信念 - 行動差의 比較

한편 주어진 행동장면이 태도대상과 얼마나 친숙하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장면공통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F = 22.13, df = 2/256, p < .001$). 장면공통도는 그 장면으로 설정된 신념의 공통연상빈도로 구분되었는데 높은 장면공통도에서 행동에 대한 예언의 평균 이탈도는 1.66이고 중간일때는 1.88이며 낮은 공통도에서는 1.78이 나와 주어진 장면이 대상과 결합이 잘 되어 있을때 행동예언이 잘되고 중간정도의 결합관계에 있을 때 안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장면공통도에 따른 이 결과는 差의 源泉과 다시 상호작용하고 있다. ($F = 13.39, df = 2/256, p < .001$)

그림 2에서 높은 信念共通度를 가진 장면에서는 신념의 호오도로부터 행동을 예언하는것이 태도로부터 행동을 예언하는 것보다 매우 유리하다. 낮은 장면에서는 이 추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태도대상과 사전에 관계가 없는 행동장면에서의 개인의 행동은 그의 전반적 태도를 가지고 예언할 수 있으나 태도 개념에 규범화한 것이 사실이다.



〈그림 2〉 場面共通성에 따른 態度-行動差와 信念-行動差의 比較

련이 깊은 행동장면에서는 그 장면과 결부된 신념의 호오도에 의하여 예언된다고 할 수 있다.

論 議

이제까지 우리는 태도와 행동사이의 불일치가 종래의 태도 개념에서 態度內變散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온것으로 보고 이를 추적하였다. 기존의 태도모형들은 개인의 태도를 호오차원위의 하나의 위치로서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규범화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개인의 신념구조의 개별성을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여기서 이들 모형으로서는 개인의 행동의 變散性を 문제삼을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예언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개인은 주어진 심리적 대상에 대하여 태도 이외에 태도내에서의 변산도 갖고있다.

앞의 결과에서 태도내변산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태

도와 행동사이의 불일치가 더욱 큰것으로 나타나 태도내변산의 크기는 개인이 그의 태도로서 행동을 결정짓는 한계를 드러내 주는 지표임을 보았다. 이 사실은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나타난다. Campbell (1963)은 상황적 識閾 (situational threshold)이란 말을 사용하여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表出하는 양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Mischel(1973)은 이 상황에서 변산이 변덕스러움이나 예측불가능같은 것과 同義語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 현상을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려는 능력 곧 변별적 재주 (discriminative facility)로서 어디까지나 개인 고유의 특성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Bem과 Allen (1974)도 개인의 성격특성에는 이 상황에 따른 變散이 내포되어 있으며 종래의 성격측정에서 이것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으로 부터 행동의 예언이 항상 문제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태도내변산은 개인특유의 신념구조를 드러내는 個人內的 變散指標로서 설정되었다. 주어진 심리적 대상에 대한 개인의 감정을 신념수준에서 관찰하면 실로 다양하게 변화한다. 개개의 신념은 그 자체가 好惡感情을 띄고 있으며 감정의 방향은 신념에 따라 서로 다르다. Tesser (1978)가 사고의 결과로서 주어진 태도가 그때 그때 변화한다고 본 것은 주어진 신념들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때 적절한 결론이었던 것이다. 사고가 주어진 대상에 대한 신념들 중에 일부 신념을 현저하게 하면 이에 따라 태도도, 그때 그때 바뀔수 밖에 없다.

여기서 Fishbein과 Ajzen (1974)이 왜 태도와 행동의 불일치의 원인으로 태도대상에 대한 分殊化를 문제삼게 되었는가가 분명해진다. 한 마디로 신념수준에서 보면 태도대상에 대한 개인의 감정은 획일적인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태도대상을 신념수준으로 잘게 분수화함으로서 행동의 예측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문제는 태도대상에 대한 분수화를 그 대상에 대한 신념구조상의 문제로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념구조에서의 個人差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즉 앞의 우리의 연구에서 보면 분수화가 행동의 예언에 도움이 되는 개인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개인도 있다. 그림 1에서 높은 태도내변산집단은 태도대상을 信念水準으로 分殊化함으로서 행동의 예측이 잘 되나 낮은 변산집단에서

는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태도대상의 분수화가 곧 행동의 예언을 높이는 것은 아니며 분수화된 태도를 지닌 사람에게서만이 분수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Fishbein과 Ajzen의 分殊化로의 접근은 태도대상에 대한 개인의 認知構造내지는 圖式을 생각하면서 접근한 것이 아님이 분명해진다.

한편 태도내변산은 처음부터 태도대상에 대한 개인의 信念構造를 반영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여기서 태도대상에 대한 개인의 신념구조는 그 대상에 대한 그의 認知的 世界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들 신념구조로부터 얻어진 태도내변산은 주어진 대상에 대한 그의 認知構造를 態度次元으로 환원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사실은 앞 절에서 제시된 결과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대상과 상황의 결합관계에 따라 즉 場面共通도가 높은 상황일수록 거기서 유발되는 행동은 장면의 호오도 즉 신념에 의하여 결정되는 반면에 장면공통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태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결과는 태도와 행동사이의 관계가 대상과 상황의 결합관계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은 상황에서의 변화를 무작위로 그의 행동에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며 그의 내면에 자리잡은 대상과 상황에 대한 認知構造에 의하여 조종받고 있음을 알려준다.

최근에 개인의 행동의 변산이 그의 세계에 대한 인지구조의 반영임을 드러내는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면서 태도내변산개념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말한 Bem과 Allen(1974)은 개인에 따라 주어진 상황에서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종래의 성격특성연구들이 간과하였음을 지적하였다. Snyder와 Tanke(1976)는 자기조정(self-monitoring)이란 말을 사용하여 개인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주어진 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의존하여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어진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의 성향에 의존하여 결정하는 사람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이 경향을 개인이 지닌 특유한 성격특성으로 간주하였다. 더 나아가 Markus(1977)는 상황에 따른 개인의 행동의 일관성은 주어진 행동차원에서 자기도식(self-schemata)의 수립과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정한 행동차원에서 자기자신에 대한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상황에 따라 행동의 일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들 연구들은 모두 개인의 행동에서의 변산성이 그의 인지구조 내지는 도식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밝힌 것으로 태도내변산의 기본 가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사실 종래의 태도모형에서 주어진 태도대상에 대하여 태도이외에 인지구조에서의 개인차를 간과하였기 때문에 행동에서의 변산을 설명할 방도가 없었다. 그리하여 Fishbein과 Ajzen (1974)에서 처럼 행동이 예언될수 있는 수준에까지 태도대상은 분수화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 조작은 무수한 分殊化로의 끝없는 回歸(regression)를 초래케하여 보편성을 지향하는 과학에 역행하게 된다. 여기서 태도내변산개념은 이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마련해 준다. 앞서도 말한것처럼 태도내변산은 태도의 변화가능범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개인적인 認知圖式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태도내변산을 통하여 행동의 범위도 결정할 수 있다. 앞의 연구결과에서도 태도내변산의 크기가 여러가지 장면에서 얻어진 행동의 변산과 비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높은 태도내변산집단은 행동에서의 변산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사실로 부터 태도내변산이 개인의 행동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지는 못하나 주어진 행동을 확률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범위로 알려준다. 그런데 사실 행동에 대한 확률적예언은 과학적 예언의 전개과정에 비추워볼 때 당연히 대두해야 할 추세를 반영하는 것일런지도 모른다. 종래의 態度模型에서 태도차원위의 한 점으로 부터 행동차원위의 한 점에 대한 예언 즉 확률적 사고의 개입을 전혀 배제한 예언은 과학적 예언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인것이다. 앞으로 보다 확대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좀 더 깊이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Abelson, R.P. Are attitudes necessary? In B.T. King & E. McGinnies (Eds.), *Attitude, Conflict, and Social change*. New York: Academic, 1972.

- Ajzen, I., & Fishbein, M.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977, 84, 888-918.
- Allport, G.W.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1937.
- Allport, G.W.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modern psychology. In G. Lindzey (Ed.),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1, Combridge Mass: Addison-Wesley, 1954.
- Bem, D.J., & Allen, A. On predicting some of the people some of the time: The search for cross situational consistencies in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1974, 81, 506-520.
- Bentler, P.M., & Speckart, G. Models of attitude-behavior relations. *Psychological Review*, 1979, 86, 452-464.
- Bagozzi, R.P., & Burnkrant, R.E. Attitude organization and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9, 37, 913-929.
- Campbell, D.T. Social attitudes and other acquired behavioral disposition. In S. Koch (Ed.), *Psychology: A study of a science*, Vol. 6, New York: McGraw-Hill, 1963.
- Davidson, A.R., & Jaccard, J.J. Variables that moderate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 Results of a longitudinal surve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9, 37, 1364-1376.
- Deutscher, I. Looking backward: Case studies on the progress of methodology in sociological research. *American Sociologist*, 1969, 4, 35-41.
- Edwards, A.L. *Techniques of attitude scale construction*. New York: Appleton-Century Crofts, 1957.
- Ehrlich, H. Attitudes, behavior and the intervening variables. *American Sociologist*, 1969, 4, 29-34.
- Fazio, R., & Zanna, M. Attitudinal qualities relating to the strength of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ship.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78, 14, 398-408.
- Fishbein, M.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beliefs about an object and the attitude toward that object, *Human Relations*, 1963, 16, 233-240.

- Fishbein, M. Attitude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In M. Fishbein (Ed.), *Readings in attitude theory and measurement*. New York: Wiley, 1967.
- Fishbein, M., & Ajzen, I. Attitude toward objects as predictors of single and multiple behavioral criteria. *Psychological Review*, 1974, 81, 59-74.
- Fishbein, M., & Ajzen, I.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5.
- Harvey, O.J., Reich, J.W., & Wyer, R.S. Effects of attitude direction, attitude intensity, and structure of beliefs upon differenti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8, 10, 472-478.
- Heberlein, T., & Black, J. Attitudinal specificity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in a field set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6, 33, 474-479.
- Irwin, M., Tripodi, T., & Bieri, J. Affective stimulus value and cognitive 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7, 5, 444-448.
- Kahle, L.R., & Berman, J.J. Attitude causes behaviors: A Cross-Lagged pane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9, 37, 315-321.
- Kendler, H.H., & Kendler, T.S. A methodological analysis of the research area of inconsistent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1949, 5, 27-31.
- Lapierre, R.T. Attitudes Vs. Actions: *Social Forces*, 1934, 13, 230-237.
- Markus, H.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7, 35, 63-78.
- McGuire, W.J. The nature of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In G. Lindzey &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2nd ed.), Vol. 3,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69.
- Mischel, W. Toward a cognitive social learning reconceptualization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1973, 80, 252-283.
- Norman, R. Affective-cognitive consistency, attitudes, conformity, and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5, 32, 83-91.

- Regan, D., & Fazio, R. On the consistency between attitudes and behavior: Look to the method of attitude fo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77, 13, 28-45.
- Schwartz, S. Normative explanations of helping behavior: A critique, proposa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73, 9, 349-364.
- Smith, M.B., Bruner, J.S., & White, R.W. *Opinions and Personality*. New York: Wiley, 1956.
- Snyder, M., & Swann, W.B. When actions reflect attitudes: The politics of impression manag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6, 34, 1034-1042.
- Snyder, M., & Tanke, E. Behavior and attitudes: Some people are more consistent than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1976, 44, 501-517.
- Tesser, A. Self-generated attitude change.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1, New York: Academic, 1978.
- Warner, L., & DeFleur, M. Attitudes as an interactional concept: Social constraint and social distance as intervening variables between attitudes and ac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69, 34, 153-169.
- Weigel R., & Newman, L. Increasing attitude-behavior correspondence by broadening the scope of the behavioral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76, 33, 793-802.
- Wicker, A.W. Attitudes vs. actions: The relationship of verbal and Overt behavioral response to attitude objects. *Journal of Social Issues*, 1969, 25, 41-78.

ABSTRACT

ATTITUDE, INTRA-ATTITUDE VARIABILITY AND BEHAVIOR

Lee, Soo-Won

Department of Education, Han Yang University

The individual difference approach to the issue of attitude-behavior consistency was examined in light of the intra-individual variability of the attitude. It was predicted that individuals whose attitudes have been relatively invariant (low intra-attitude variability) would be predicted well from their attitudes. In the first session, subjects completed the controlled association of the attitude objects. Here, subjects' attitude (summation of the beliefs aroused from controlled association) and intra-attitudinal variability (standard deviation of the beliefs aroused from controlled association) were computed by Fishbein's attitude formulation. In the second session approximately 2 weeks later, several measures of subjects' reports of behaviors were obtained. Attitude-behavior correlations were then computed within each of both groups of subjects produced by a low-high intra-attitude variability. As predicted, only subject with low intra-attitude variability manifested high attitude-behavior correlation across all behavioral measures.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for the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and for the attitude-behavior consistency controversy were discussed.